

지역 소식통

정읍시,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 위해 이자 지원

정읍시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사업으로 자금을 배정받고 대출을 실행한 축산농가로, 대출금리 1.8% 중 0.4%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지난달 28일까지 농가별 신청서와 대출 실적 증빙서류를 확인해 최종 접수를 완료한 결과, 지원자 478농가 중 387농가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2024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사업 대상자인 428농가에 대해서는 2025년에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자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10일 추석 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행사

정읍시 오는 10일 시청 광장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장애인 생산품 판매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다양한 제품들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시와 도내의 5개 직업재활시설이 참여하며, 해피드림의 빵류, 더팩토리의 사무용지류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판매된다. 총 40여 종의 선물세트가 준비돼 있으며, 이 제품들은 모두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것으로 구성됐다.

이학수 시장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이번 판매행사를 통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제품 구매 촉진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적극적인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주요 사업 추진 점검

이학수 시장, 내장산 문화광장·장금이파크 내부 콘텐츠 제작 등 6개 사업 현장 소통

이학수 정읍시장은 4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선 8기 반납점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들의 성과를 점검,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시장은 △내장산 문화광장 △장금이파크 내부 콘텐츠 제작 △시도35호선 사면 항구 복구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 △안의·순흥록 선생 흉상 건립 등 6개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현장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시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 모두가 시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계획대로 진행돼 시민의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한 사업 점검을 넘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이학수 시장의 의지가 담긴 행보였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더욱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명절 성수품 20대 품목 가격동향 게시'

물가종합상황실 운영... 가격표시제·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임산물 부정유통행위 등 집중 단속

고창군이 추석에 맞아 18일까지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창군은 추석 물가안정 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물가종합상황실을 연휴 마지막날인 18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물가대책반(5개 반)을 편성·운영해 명절 성수품 20개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파악해 고창군 홈페이지에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이어 가격표시제와 농·축·수산물원

산지 표시 이행 여부, 임산물 부정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1일~20일 고창전통시장 6개소)와 추석 대비 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 운누리 상품권 현금행사도 9월15일까지 진행한다.

앞서 고창군은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의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고창사랑상품권 구매시 15%할인

혜택을 유지해 지역 내 소비활동을 늘려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돕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들이 물가 부담없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가종합상황실 운영과 명절기간 중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수소 청소차량 운행

부안군(군수 권익현)에서 수소 청소차량이 운행을 시작했다.

부안군은 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4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9월부터 수소 청소차량 2대를 운행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수소 청소차량 2대 중 1대는 부안읍, 1대는 변산면에 배치되어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하고 있다.

수소 청소차량은 9.3톤의 적재공간을

확보하고 운행시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신익재 환경사업소장은 "친환경 수소 청소차량 도입으로 관내 생활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처리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수소 청소차량 1대를 이미 도입하였는데, 이번에 2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총 3대의 수소 청소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친환경 청소행정 선도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고창군, 1만756농가... 농가당 60만원씩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고창군이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이하 농민 공익수당) 수당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명절 전에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1만028농가가 신청했으며,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272농가를 제외하고 최종 1만756농가를 대상으로 64억5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민 공익수당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및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급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고창군에서 시행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도 농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을 지류형 카드형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마을별 종합행정을 통한 공익수당 지급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농가는 이후 논·밭의 농지 형상 기능 유지, 비료·농약 적정 사용 등을 통한 환경실천협약 준수를 통한 이행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부안군은 세수확보와 재정 건정성을 위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부안군의 일제정리기간 실시 기준 총 체납액은 3,268백만원이며,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5명으로 체납액이 1,708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2.2%의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택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직장급여, 카드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인 공매추진을 실시하는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탄력적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함께 운영해 위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단속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 '1+1' 이벤트 실시

고창군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모금액 확대를 위해 4일부터 모금액 10억원 달성 시까지 '추석맞이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귀성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이후 누적 기부금 10억원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벤트 기간 내에 기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50명에게 3만원 상당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추가 증정할 예정이며, 고향사랑 1000리 또는 전국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고창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주문하면 자동 응모된

다. 고창군은 지역 특산물인 장어, 복분자, 고구마, 쌀을 포함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관광·서비스 상품 등 80여 종류의 답례품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분은 16.3%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상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